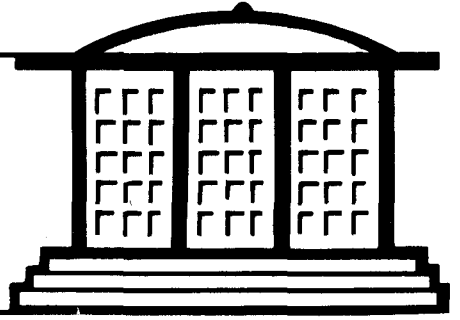


# 소식

# 기관단체



## 축협직제 일부 확대개편

—대가축부·중소가축부 신설 등 전문화—



박순용

(유통개발부장)



변호철

(중소가축부장)



김직현

(중소가축부 차장)



김정식

(소가축 과장)



김영섭

(사양지도 과장)



정흥기

(양돈 과장)



이창주

(소가축과 과장대리)



조소연

(소가축과 과장대리)



이기혁

(양돈과 과장대리)



이상근

(양돈과 과장대리)



이제영

(사양지도과)

### —6실11부1국41개 支事務所 체제로—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 직제가 일부 개편되어 지난 5월 21일자로 본부 및 지사무소 과장급(2급갑)이상 간부직원 52명을 승진 및 전보, 정년대기발령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축협중앙회는 국내 축산업의 전문화 및 규모확대 추세에 부응하고 고도성장을 가속화하는동시에 날로 팽창되고 있는 축협의 제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기존기구를 축종별 분야별로 개편 전문화하는 등 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 운영키로 했다.

축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 최근 농업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축협중앙회 직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축산지도부와 유통부가 대가축부, 중소가축부, 유통개발

부로 확대 개편됐고 금융부가 금융부와 저축부로 분리됐다.

또 제주도지회가 신설됐으며 전북도지회 소속 공판과가 전주사업소로 분리 독립된 한편 현재 차장급인 홍보실장의 직급이 부장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홍보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일부 부서의 기능이 대부분 강화되었다. 이에따라 축협중앙회 기구는 현재의 6실9부1국34과39지사무소 체제에서 6실11부1국38과41지사무소 체제로 개편됐다.

또 축협중앙회 정원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23명이 늘어나 총1천7백37명이 됐다.

### 축협 과장급 승진 및 전보발령

◇과장승진 발령=▲유제영(홍보실 홍보역) ▲김경

환(저축부 증권과장) ▲조정근(조사부 경영조사과장)  
 ▲김남호(강원도지회 차장) ▲연규환(충북도지회 차장)  
 ▲임종연(전남도지회 참사) ▲허기식(제주도지회  
 설립사무국 차장) ▲강구은(축산종합연수원 참사) ▲  
 이병우(한우개량사업소 과장) ▲이문성(유우개량사업  
 소 과장) ▲김병욱(횡성배합사료공장 차장) ▲이정현  
 (나주배합사료공장 차장) ▲박정환(신탄진지점 차장)  
 ▲권오풍(충남도지회 차장) ▲문치은(전주사업소장)  
 ▲남성우(농림수산부 파견 총무부참사).

◇과장전보발령=▲이재근(기획실 조정과장) ▲이원  
 계(총무부 인사과장) ▲김평화(총무부서무과장) ▲정  
 명근(경영지도부 세무과장) ▲박종명(경영지도부 교육  
 지도과장) ▲최정철(대가축부 낙농과장) ▲오학세(대  
 가축부 육우과장) ▲이광직(대가축부 자급사료과장)  
 ▲한창수(대가축부 기술지원과장) ▲정흥기(중소가축  
 부 양돈과장) ▲김정식(중소가축부 소가축과장) ▲김  
 영섭(중소가축부 사양지도과장) ▲문선창(유통개발부  
 유통과장) ▲김기동(유통개발부 판매 가공과장) ▲홍  
 건(유통개발부 군납과장) ▲이계홍(유통개발부 가축  
 시장과장) ▲이재무(금융부 자금과장) ▲안병연(저  
 축부 저축과장) ▲곽수용(저축부 상호금융과장)  
 ▲ 최동환(유우개량사업소장) ▲장석홍(축산진흥기  
 금관리국 기금기획과장) ▲이환수(경기도지회 차장)  
 ▲성수원(기획실 계리과장) ▲최영수(경남도지회 참  
 사) ▲김홍수(축산종합연수원 참사) ▲홍명기(축산중  
 합연수원 참사) ▲류영(서울공판장 과장) ▲강동희(마  
 포지점 차장) ▲이정원(성내동지점 과장) ▲최문이(오  
 류동지점 차장) ▲민병열(압구정지점 차장) ▲우남재  
 (화양동지점 차장) ▲최길호(안양지점 차장) ▲김종백  
 (영업부차장) ▲류지윤(기획실 법규과장) ▲강덕송(경  
 기도지회 차장) ▲윤상복(총무부 감사) ▲김찬주(전남  
 도지회 참사)

■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는 6월 24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가 오는 6월 24일(금) 안  
 양소재 가축위생 연구소 회의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시: 1988년 6월 24일(금) 10:00~16:00

○장소: 안양 가축위생 연구소 회의실

○안건: 88년도 결산,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  
 의

—특 강—

○주제내용: 생산비 절감방안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종신회원에 대한 종신회원패  
 증정과 학회발전에 공이 큰 공로자에 대해 학술상 및  
 공로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양계분야와 관련된 기계 기구 약품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전시회 참가 및 출품 희망자는  
 한국가금학회 사무실(축산시험장 기금과, 전화: 0331  
 -32-5116~7)로 문의 바란다.

「제1회 양계영양기술 워크숍」 개최

한편 동학회에서는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  
 틀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안암동 애기능 캠퍼스)  
 에서 양계영양과 사양편으로 나눠 각 5가지씩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 음—

일시: 1988년 7월 15~16일(금, 토 이틀간)

장소: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안암동 애기능 캠퍼스)

내용: 제1일 영양편, 제2일 사양편으로 나눠서 각5가  
 지씩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음.

접수마감: 1988년 7월 5일

등록비: 1인당 3만원(교재 및 중식포함)

신청: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하면 신청서를 우송하겠  
 음.

\* 고려대학교 축산학과 94-2641(대표), 94-4381  
 (대표) 구내 192 또는 639번,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우편 136-00)

■ 피리메타민, 배합사료첨가 금지토록

—농림수산부,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지침 시달—

농림수산부는 닭의 류코싸이토준병 예방목적으로 사  
 용되어온 피리메타민이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배합  
 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준을 개정, 사용금지  
 토록했으나 일부 사료공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이에대한  
 시정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지침은 최근 농림수산부가 한국동물약품공  
 업 협동조합으로, 한국동물약품 협동조합에서 동물약

품 제조업체에 연계하달된 것인데 이는 본 회가 대일축산물 수출과 올림픽을 앞두고 발암물질의 잔류로 인한 피해예방, 그리고 축산물 소비문화에 의한 양계산업 불황을 대처키 위한 시정건의로 비롯된 것이다.

피리메타민은 발암물질로 밝혀져 지난 87년 6월부터 사용금지된 제품으로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예방, 치료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위반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한편 양계농가에서는 닭겨모기의 서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류코사이토준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발암물질이 아닌 제품사용이 요구되며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지침에 의한 제품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코사이토준병=류코사이토균 카우레리가 병원체로써 닭겨모기에 의해 전파, 한국 일본 등 논농사를 주로하는 동남아시아에 다발하는데 출혈과 빈혈, 산란을 저하 등을 주증상으로 양계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한다.

▲ 첨가수준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지침 ◇

품 명	대상배합사료						
	병아리용 (육계제외)	닭				총 계 용	산란계용
		전 기	중 기	후 기 I	후 기 II		
나 이 스타 틴	55	55	55	55	-	-	-
테 스토 마 이 신 A	5~10	5~10	5~10	5~10	-	5~10	-
린 코 마 이 신	-	2.2~4.4	2.2~4.4	2.2~4.4	-	-	-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4.4~50	-	-	-	-	11~27.5	11~27.5
밤 버 마 이 신	0.5~5	0.5~5	0.5~5	0.5~5	-	2~5	2~5
버 지 니 아 마 이 신	5~15	5~15	5~15	5~15	-	10~20	10~20
스 팩 티 노 마 이 신	-	-	-	-	-	-	-
스 피 라 마 이 신	5~20	5~20	5~20	5~20	-	-	-
아 보 파 신	7.5~15	7.5~15	7.5~15	7.5~15	-	-	-
아 연 바 시 트 라 신	4~50	4~50	4~50	4~50	-	4~50	10~50
에 라 스 로 마 이 신	5~20	5~20	5~20	5~20	-	20	-
엔 라 마 이 신	1~10	1~10	1~10	1~10	-	1~10	-
염 산 옥 스테 트 라 싸 이 클 린	10~100	50~100	50~100	50~100	-	5~50	-
염 산 클 로 르 테 트 라 싸 이 클 린	10~55	10~55	10~55	5~20	-	10~50	-
옥 시 테 트 라 싸 이 클 린 4급암모늄	5~55	5~55	5~55	-	-	5~55	-
치 오 팍 틴	2~10	2~10	2~10	2~10	-	2~10	-
키 타 사 마 이 신	5.6~11	5.6~11	-	-	-	-	-
타 이 로 신	4.4~55	4.4~55	4.4~55	4.4~55	-	22~55	-
티 아 부 틴	-	-	-	-	-	-	-
페 니 실 린	2.6~55	2.6~55	2.6~55	-	-	-	-
하 이 그 로 마 이 신 B	6~12	6~12	6~12	6~12	-	-	-
황 산 네 오 마 이 신	10~35	10~35	-	-	-	-	-
황 산 클 리 스타 틴	2~20	2~20	2~20	2~20	-	2~20	-
나 라 바 진	60~80	60~80	60~80	60~80	-	-	-
나 이 카 바 진	100~200	100~125	100~125	100~125	-	-	-
테 록 퀴 네 이 트	20~40	20~40	20~40	20~40	-	-	-
조 렌	40~125	40~125	40~125	40~125	-	-	-
라 살 로 시 드 나 트 린	75~125	75~125	75~125	75~125	-	-	-
모 넨 신 나 트 린	100~121	100~121	100~121	100~121	-	-	-
살 리 노 마 이 신	44~66	44~66	44~66	44~66	-	-	-
아 프 리 노 시 드	60	60	60	60	-	-	-
암 프 로 리 움	40~250	40~250	40~250	40~250	-	-	-
에 도 파 베 이 트	2.56~16	2.56~16	2.56~16	2.56~16	-	-	-
암 프 로 리 움	100	100	100	100	-	-	-
에 도 파 베 이 트	5	5	5	5	-	-	-
설 파 퀴 녹 사 린	60	60	60	60	-	-	-

염산로베니	33	33	33	33	-	-	-
크로피	125~250	125~250	125~250	125~250	-	-	-
크로피	100	100	100	100	-	-	-
메칠벤조케이	10	10	10	10	-	-	-
할로푸지	3	3	3	3	-	-	-
니트로	10~15	10~15	-	-	-	-	-
로니다	-	-	-	-	-	-	-
모란텔시트레이	-	-	-	-	-	-	-
실파메타	-	-	-	-	-	-	-
실파치아	-	-	-	-	-	-	-
오라퀸독	-	-	-	-	-	-	-
카바독	-	-	-	-	-	-	-
푸라졸리	8.3~11	8.3~11	8.3~11	8.3~11	-	-	-
비코자마이	5~20	5~20	5~20	5~20	-	-	-

■ 축산회관건립 기공식



한국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가 추진하여 오던 "축산회관" 이전을 위한 신축회관 건립 기공식이 지난 5월 26일 오전11시에 서초구 서초동 1516-5(서울고엽)에서 동협회 임직원 및 입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신축회관은 금년 12월 초에 완공되어 입주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 제1차 축사표준설계도 협의회 개최

지난 5월 30일 오전10시 축협중앙회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축사표준설계도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양계사육 규모 확대 및 시설개선과 국제경쟁력강화 등 축산여건의 변화로 기존 축사설계도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계사를 중심으로 사육규모별, 사육단계별 계사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축사표준설계도에 대해 중점협의를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 일정은 올해 3월부터 89년도 11월까지이며 △규모확정 △자료수집 △주요설계지침확정 △설계내용확정 △기초설계 △기초설계심의 △설계용역의뢰 △심의(건설부) △인쇄 △홍보 △보급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규모확정에 대한 중점토의가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2차, 3차, 4차에 걸쳐 협의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신흥종 고창양계사장(본회 부회장), 이동명 덕일농장 농장장, 유재일 축협연수원 연구원, 이규성 본회 닭경제능력 검정소장, 김영섭 축협중앙회 사양지도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 축산물수입개방과 한국축산의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6월11일(토), 서울우유협동조합 강당에서—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류제창)가 주최하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한국축산의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6월 11일(토) 오전 9:30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 본관 강당(4층)에서 개최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일본 학자 2명을 초청하여 일본의 수입개방 대응책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국내 학자 3명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물 수입개방과 국내 축산의 보호대책 [발표자 : 류제창(건국대 축산경영학과교수)박사]
- 일본에 있어서 쇠고기 수입개방과 축산정책의 동향 [발표자 : 七戶長生(일본 북해대교수)박사]

•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전략  
[발표자 : 하서현(강원대 축산경영학과교수)박사]

• 일본에 있어서의 유제품의 수입과 생유의 수급절차  
[발표자 : 小林康平(일본 千葉大교수)박사]

• 유제품 수입에 대응한 낙농경영의 합리화 방안[발표자 : 조석진(영남대 축산경영학과교수)박사]

• 종합토론

## ■ 수의공중보건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수의 공중보건학회(회장 정영채)가 오는 6월 18일(토) 오후 2시 대한양돈협회 강당에서 식육의 위생 및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88년도 춘계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연제 및 발표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제 및 발표자—

- 1) 식육의 수출입 현황과 검역조건—김범래 소장(동물검역소)
- 2) 식육의 위생검사와 개선방안—이영순 교수(서울대 수의대)
- 3) 식육의 안전성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이재진 연구관(가축위생 연구소)
- 4) 수출입 식육위생 및 안전성 검사현황과 대책—Ko Namba 과장(일본후생성유육위생과)
- 5) 종합토의—신광순 교수(서울대 수의대)

## ■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 및 총회개최

—7월 23일(토), 전남대에서—

한국축산학회(회장 한석현)는 오는 7월 23일(토) 전남대 농대에서 88년도 제44회 학술발표회 및 제38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닭 병성감정의뢰 증가현상

—4월말 현재 110건, 계획초과—

가축위생연구소의 닭질병 병성감정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가금질병의 발생동향과 추세 파악으로 방역지침 확보는 물론 양계농가에 대한 질병예방 및 위생기술 지도를 위해 실시해온 닭병성감정이 지난 4월말현재 1백10건으로 계획 70건에 비해 40건을 초과하는 등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의 경우도 각시도가 축위생시험소와 일반양계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가검물의 질병검색이 모두 3백53건에 달해 계획량 2백건을 크게 초과, 무려 1백53건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월별 가검물 의뢰현황은 5월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월이 42건, 4월 3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10월에는 21건, 7월 20건, 6월 18건으로 낮게 접수돼 86년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성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염성 질병이 2백54건으로 72%를 차지했으며 비전염성 질병은 99건에 28%로 집계돼 86년에 비해 비전염성 질병 검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염성 질병 가운데 세균성 질병이 1백50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러스성 질병 83건(23.5%), 곰팡이성 및 기생충성 질병이 21건(5.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발하는 주요질병은 대장균증이 15.3%를 비롯 마이코플라즈마병 9.6%, 포도상구균증 9.1%, 마력병 7.1%, 감보로병 5.4%, 전염성 기관지염 4.5%, 닭뇌척수염, 백혈병, 복막염이 각각 3.1%, 콕시들통증 2.8% 등 전염성 질병이 전체의 63.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농축산물 수입반대 전국농민 결의대회 개최



전국 낙농업자 및 농민 3천여명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7개 농축산유관단체 주최로 「농축산물 수입반대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장(지재선 :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농민은 우리의 생업안정을 위해 단결된 힘으로 수입저지에 앞장설 것이다”라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대회진행은 수입피해사례보고에 이어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시도하려 한다면 우리 농민의 생업안정에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농민일동은 생업안정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단연코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의문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미국은 자국만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강요를 즉각 철회할 것 ▲재벌의 농축산물 수입을 그만두고 농축산분야에서 즉각 물러갈 것 ▲국회는 수입규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이라고 쓴 허수아비를 만들어 화형식을 마친후 4백여명이 하오 6시까지 소 2마리를 트럭에 실어 앞세운 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쇠고기 수입개방에 죽어가는 백만농민」이라고 쓴 수십개의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 시위를 계속하여 강력한 수입반대 의사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 대구경북지역 양돈인 대구시청 연좌시위

대한양돈협회 경북도협회 화양돈인 200여명은 지난 5월 17일(화) 대구시청에서 돼지 부산물 경매제도 실시 촉구를 위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양돈인들은 돼지·부산물(머리, 내장, 간, 허파, 지라, 심장, 족 등)에 대한 도매시장 운영자의 편리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인한 가격의 임의결정 행위는 출하농민을 수탈하는 거래방법임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 부산물도 공개경쟁 입찰제를 실시하여 부산물 처분에 따른 부조리와 불신을 척결시키는 한편 공정거래를 형성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 농축산물 유통센터 3곳 건립계획

—2001년까지 양천, 송파, 상계지역에—

서울시는 2001년까지의 장기도시 기본계획에서 농축산물 유통기능을 지역별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 지역내에 3개의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간 균형개발과 생활 지역별 유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락동, 신정동, 상계동에 농축산물 종합유통기지를 배치하기로 했다.

■ 장관초청 수의계 원로 간담회

농림수산부 장관은 가축위생 행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난 5월 4일 삼정호텔에서 원로수의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의계 원로들은 축산물의 소비와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민보건위생 비중이 높아가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축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가축의 증산정책보다 축산물의 질전향상을 꾀하는 한편 위생업무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농협, 건강순회 무료검사

—생명보험 공제가입농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회장 한호선)는 농사철 농민조합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6억원을 들여 농협생명공제(농민보험)에 가입한 농민 19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전국단위농협 소재지에서 간염, 당뇨, 부인암 등 성인병에 대한 무료순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이 기간동안 농민조합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각도별로 2~3대씩 모두 27대의 순회건강 진료차량을 동원, 면단위까지 순회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권위있는 전문의료인을 초청해서 농약중독시 응급처치요령, 건강식, 성인병예방 등 건강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 위배사료 조치결과 통보

부산직할시농정과에서는 '88. 1/4분기중에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위배된 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 위배사료 조치내역

제조업체명	사료명	위배정분	혼입허용한계	검사결과		과부족		과징금부과	
				1차	2차	1차	2차	일산액	금액
협성사료	어분(3급)	토사	2%이하	2.41%	2.37%	0.2%	0.2%	16분	160,000